

사설

의대생 복귀, 더 이상의 특혜는 안 된다

지난 12일, 의대생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유급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유급 조치는 유지하되, 2학기부터 곧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사 운영 체계를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전환하고, 본과 4학년 학생 중 실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국가시험을 추가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 공백 최소화와 학업 지속 보장을 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사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한 채 사실상 예외를 허용하는 이번 결정은 '특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학사 유연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그 약속은 이제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했다.

우리학교도 1, 2학년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 형태로 복귀했지만, 실습 중심의 3, 4학년 과정은 여전히 복귀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특히 본과 4학년은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실습 이수 여부가 밀접히 연관돼 있어 우려가 크다.

유급은 교육과정 미이수에 따른 정당한 학사 제재다. 그러나 유급된 학생의 2학기 복귀가 허용된다면 유급의 실질적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더구나 국시를 추가 시행하는 방안은 기존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시험 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위해 학칙을 변경하고, 국가시험 제도를 조정하는 전례는 고등교육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도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왔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
특정 집단의 특권을
고착화하는 선례가 아닌
고등교육의 원칙과 신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2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이러한 조치가 다른 전공생들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의대생의 복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복귀가 어떠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

뤄지느냐다. 납득 가능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 복귀는 '보주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과 자격 검증은 신뢰 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집단적인 수업 거부나 정치적 요구로 학사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은 사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버티기'가 학사 유연화를 이끌어내는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당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복귀한 학생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특정 집단의 특권을 고착화하는 선례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원칙과 신뢰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세시봉

한국 고증하기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서울이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핫하다. 다만 내용은 씁쓸하다. 관광 상품이 성형외과와 대형 학원이 밀집한 곳을 돌아보는 것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서울이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다크투어리즘은 본래 역사적으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방문해 그 속에 깃든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여행을 말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DMZ가 그 예다. 이런 장소들은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경고이자 기억과 성찰의 공간이다.

물론 서울의 성형외과나 학원가를 아우슈비츠나 DMZ와 동일한 의미의 다크투어리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장소가 현대 사회에 주는 의미와 그로 인해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점이 있기에, 다크투어리즘과 어느 정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즐비한 성형외과와 대형 학원가는 한국 사회 고질적인 외모지상주의와 과잉 경쟁이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처럼 한국 문화를 다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가 우리 문화를 주목하는 현상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다만 우리 문화가 더 건강한 문화로 주목받길 원한다면, 그 이면을 살펴보는 모습도 필요할 듯하다. K팝 산업이 공장식 아이돌 양산의 결과인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외국인 유학생과 거리를 건다가, 한 유학생이 "왜 밤 10시만 되면 교복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냐"고 물었다. 내게 답은 간단했다. 10시에 학원이 공식적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듯했다. 한국의 사교육을 설명하며 오히려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던 풍경이 다시금 낯설어졌다. 이런 낯설어야말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서울 다크투어리즘을 두고 한국 현실을 과도히 왜곡해 외국인에게 소개했다고 지적한다. 물론 한국 사회의 민감한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이 왜 생기게 됐는지를 직시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다크투어리즘은 불편함을 마주하는 여행이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때로 우리를 더 나은 인간, 더 성숙한 사회로 이끈다. 다크투어리즘 여행지는 성찰의 공간이지, 그 자체를 애써 외면할 공간은 아니다. 현대 사회 서울도 마찬가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AED 안내와 교육 활성화 필요

안전민감증이 필요할 때

강다윤 기자
rkdekdb@khu.ac.kr



지난해 9월 교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지 열 달이 지났다. 그동안 학교는 캠퍼스 내에 자동제세동기(AED) 총 28대(서울캠 20대, 국제캠 8대)를 설치했다. 발 빠른 대처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설치된 AED에 대한 안내와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은 조금 아쉽다.

국제캠 건강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AED가 위치한 건물 안내 자료는 새롭게 개선됐지만, 건물 내 어느 곳에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다. 건물 내에 AED가 있더라도 건물 내 설치 위치를 모른다면, 위급 상황에 AED를 바로 찾아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캠의 경우 AED의 건물 내 상세한 위치 정보가 제시된 것과 대비됐다.

기자가 만나본 여러 재학생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점 또한 문제였다. 건강센터 측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기숙사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한다. 입사생이 아닌 학생은 AED 사용법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기숙사 차원의 교육도 전체 입사생 대상이 아닌 학생 멘토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국제캠 건강센터 측은 다른 행사를 이유로 올해 안에는 추가적인 교육을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교육이 기숙사 내 행사나 다른 일정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교 측이 여전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단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 번, 만 번을 대비해도 부족한 것이 안전 문제다. 일회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꾸준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거다. 교내 모든 구성원이 건물 내 AED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누구나 어느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확충돼야 할 것이다.



만평 AED 설치 위치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